

##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제정과관련한

# 성 명 서

( '95. 9. 14일 발표 )

최근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 환경부, 산림청이 법안의 일부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경실련, 환경운동연합등 시민. 환경단체들의 잇따른 반대성명 발표와 관련,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이들 부처 및 단체의 무차별한 반대행동에 우리 10만 삼척시민 모두가 개탄하고 있다.

정부와 전국의 시민. 환경단체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은,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탄전지역 회생의 마지막 카드이다.

설악산 모노레일건설, 월드컵 스키대회 유치를 위한 발왕산개발등 강원도의 현안마다 제동을 걸어온 이들 중앙부처와 시민. 환경단체들이, 탄전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피눈물나는 몸부림에 대한 지역회생 차원의 정책대안 제시와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못할지언정, 지역주민들의 지역회생의 몸부림에 배치되는 국민정서 함양과,

국민여가지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반대에 앞장 선다는 것은, 우리 삼척시 도계지역은 물론, 인근 태백, 정선지역 주민모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밖에 귀결지을 수가 없다.

폐광지역에 와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어떻게 알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능사인양 반대만하는 환경단체,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지역실정도 모르는채, 어떻게 탁상공론, 탁상행정식으로 무조건 불가라고 반대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통상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이 삼척, 태백, 정선 폐광지역 주민 모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현안 문제라는 것을 다시한번 냉철히 직시하여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10만 삼척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입법예고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은 탄전지역 주민들의 마지막 지역회생의 여망으로써, 지역실정을 도외시한채 환경부 등 일부 중앙부처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의 특별법 전면 재검토 요구 성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I. 지역주민과 통상산업부등 정부당국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년내 제정하여 시행할것을 촉구한다.

I.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안에 대하여,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는 환경부, 문화체육부, 산림청은 피폐된 탄광지역 회생의 절박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여, 헌법에 명시된 지역주민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입법 예고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I. 만약 환경부등 정부 일부부처와, 시민. 환경단체등이 계속 반대하여 입법예고된 특별법안 내용이 원안대로 제정되지 않을시에는, 우리 삼척시의회 15인의원일동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보호와 지역회생차원에서, 우리 10만 삼척시민은 물론, 인근 태백, 정선지역주민 사회단체등과 공동 연대하여 규탄집회, 방문시위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경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14

이

6월

也

이것이 신재민이 쓴 것이다

상인원주인팔수東都上  
인팔수東都上

이훈종평교관호니  
명  
지  
여  
부  
는



통 상 산 업 부

우 427-760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 (02) 500-2780/전송 503-9603/담당 이명률

문서번호 석탄 57513 - 295

시행일자 1995. 10. 5. ( )

수신 삼척시의회 의장

참조

제목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관련 성명서에 대한 회신

1. 귀의회에서 우리부 및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 제정관련 성명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폐광지역개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광 지역개발지원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일부 환경관련단체등의 성명서 발표등 개발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바 있으나,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귀의회의 의견이 대부분 수렴된 내용으로 법제정 절차에 따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끝.

통 상 산 업 부 장

석탄산업과장 전결



문 화 체 육 부

우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 / 전화 (02) 722-8413 / 전송(02)722-2877

문서번호 관시07000-414

시행일자 1995. 10. 4

경유

수신 강원도 삼척시의회 의원일동

참조

제목 성명서 관련 회신

---

귀 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되어 우리부로 이첩('95. 9. 29)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정 관련 민원(성명서)에 대해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 화 체 육 부    장

